〔韓國造景學會志, Vol. 20, No. 4 pp. 39~53 1993年 1月〕

慶州市 都市景觀과 그 이미지에 관한 硏究

李 揆 穆
서울市立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the Townscape and Image of Kyungju City

Lee, Kyu-Mok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City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townscape of Kyungju based on the urban images captured by citizens. 58 verval interviews and 50 sketch maps were collected and analized comparing with York which was a similar old city in England. In the verbal questions, elelments like tombs, historic remains, families and historic values were frequently mentioned mainly because of their social and historic meaning. But in the sketch maps, physical elements like railroad station, city hall, roundabouts and streets were more frequently appeared probably because of their visibility. As a whole, many tombs which were built long ago in and around the city were commonly mentioned in verbal questions, sketch maps and even in nicknames. As the most dominant factors,it can be compared with York Minster in York. But whereas the shopping streets in York were very attractive to the people, many streets in Kyungju were regarded as dirty and inharmonious elements in townscape. In conclusion, we can call Kyungju 'the city of tombs', but to evoke the sense of place in the city the streets should be improved and activated as the center of city life.

Ⅰ. 序 論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면서 관광도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의 경관을 분석하고 그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경주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주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물과 사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의의나 관광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시민의 생활이 직접 영위되고 있는 경주도시 자체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현재의 시가지이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요소로 나타난 범위까지가 포함된다.

필자는 십수년전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 요크(York)시의 경관을 조사 분석한 바 있다(필자, 1983). 요크시와 경주시는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는 다른 도시들이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역사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가능한 경우에 이 두 도시를

주) 이 연구는 199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시민의 도시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요크시 경관분석시 사용했던 설문조사 및 인지도그리기 방법을 보완해서 활용코자 한다. 두 도시를 비교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람들이 두 도시에 대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상에 공통점과 상이점이 무엇인가 파악해 보려는데 있다.

본래 린치(Lynch, 1961)가 개발한 認知圖그리기 방법은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이미지는 잘 파악되었으나 도시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성 등은 포착되기 어렵다는 결함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도그리기 이외에 몇가지 口語的 설문을 설정하였다(Rozelle & Baxter, 1972 참조). 도시의 이미지는 환경 전반에 대한 이미지의 하나로서, 그 특성은 환경지각과 체험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은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에서 부터 인지과정을 거쳐, 가치판단을 한 다음 태도를 표명하기까지의 인간의 환경 즉 도시에 대한 일련의 상호작용을 모두 거치도록 하였다. 8개의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눈을 감고 이 도시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2. 귀하가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기억에 떠오릅니까?
3. 귀하는 이 도시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친지가 이곳을 방문했거나, 혹은 친지와 같이 방문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볼만한 곳으로 어느 장소를 추천하시겠읍니까?
5. 또 저녁에 즐길만한 곳으로 어느 장소를 추천하시겠읍니까?
6. 이 도시에 별명을 붙인다면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하겠읍니까?
7. 이 도시의 인상을 해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의 머리속에 있는 그대로 이 도시의 약도를 그려주십시오.

설문의 내용을 보면, 우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은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내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며 무엇이 기억에 떠오르느냐라는 질문은 도시에 대한 인지내용을 묻고자 했던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도시경관에 대한 가치판단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의 4 가지 질문은 태도 혹은 행동에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문을 선호하는 곳이나 즐길 만한 곳을 물었고 끝으로 별명을 대라고 한 것은 경주시 전체의 장소적 의미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질문이 주관적으로 답변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에 결과는 여러가지 서술적 문장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필자가 적당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연구에 중점을 둔 現象學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 1988 : 임승빈, 1991 : 175－200 참조), 엄격한 통계처리와 유의성 검증 등은 연구의 성격상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우선 경주시의 경관이 변천해 온 역사적 경위를 살펴본 다음, 환경지각, 인지, 가치부여의 측면과 선호하는 장소의 측면에서 경주시의 특징적 경관요소를 추출하고, 시민이 그린 인지도와 별명으로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하여, 결론에서 경주시의 총체적 이미지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경관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Ⅱ. 慶州市 都市景觀의 變遷

가. 王京으로서의 경주

경주 일대가 씨족집단의 중심인 촌에서 邑落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박혁거세가 신라의 왕권세력으로서 신라를 건설한 기원전 57년이었다. 기원후 1세기 후반부터는 金城, 月城, 계림지역을 포함한 일정지역은 점차 읍락의 단계를 넘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춰갔다. 중심지역인 王都는 직경 4km정도의 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왕궁을 비롯한 각종 관부가 모여 있었고 이것은 왕경 전체 면적의 수십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금성의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심부 어디엔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주요한 도시경관요소로 남아있는 시내 평지에 산재한 古墳群들은 3세기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5세기 초반에는 대형고분이 들어섰다. 이들 고분군들은 월성 서북쪽의 노동리, 노서리, 황남리, 황오리에 몰려 있다. 고분들과 중요시설들은 당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첨성대를 중심으로한 원형 방사선 배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고분군은 6세기초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교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시내인구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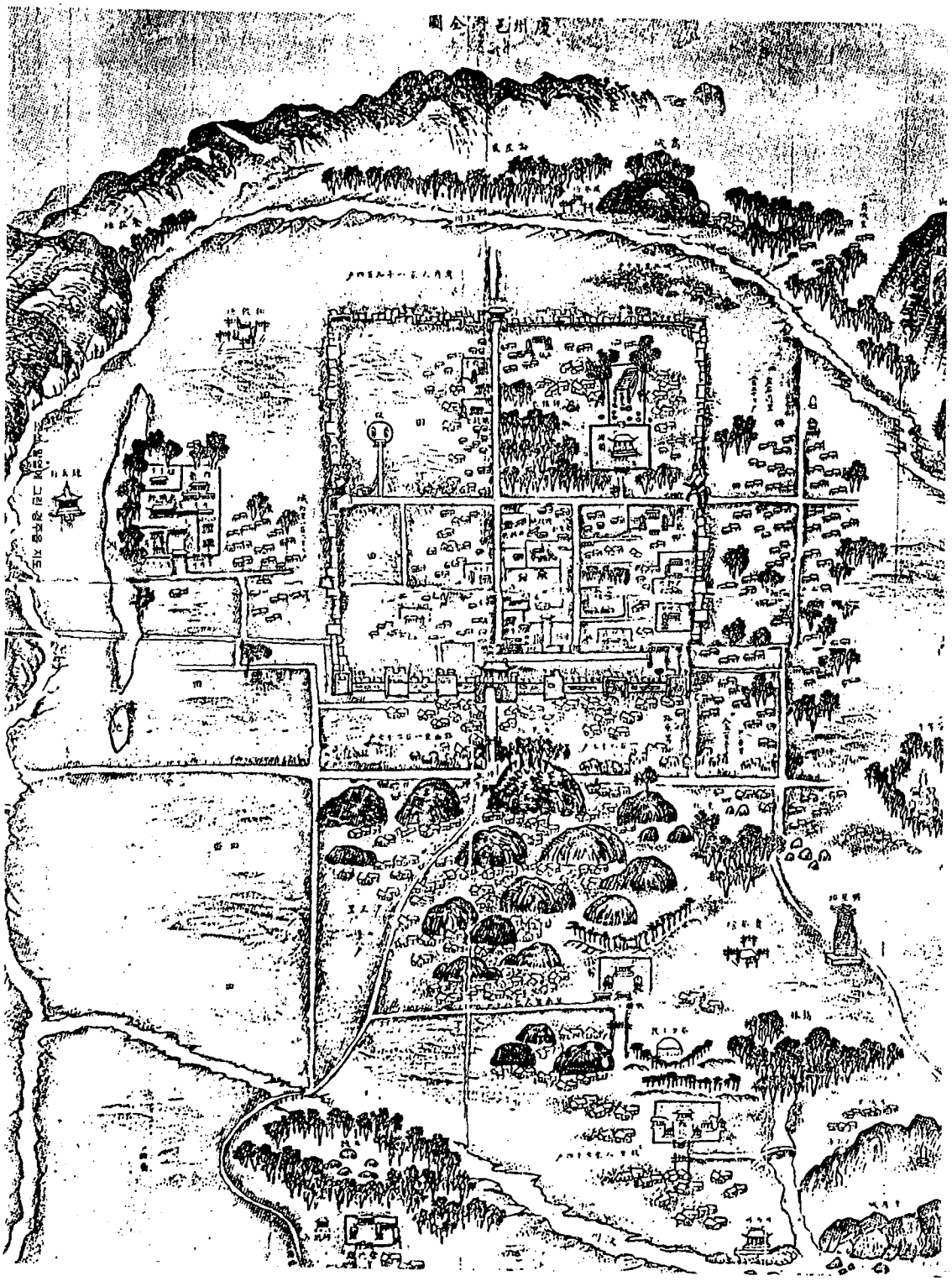


그림1 경주읍성전도(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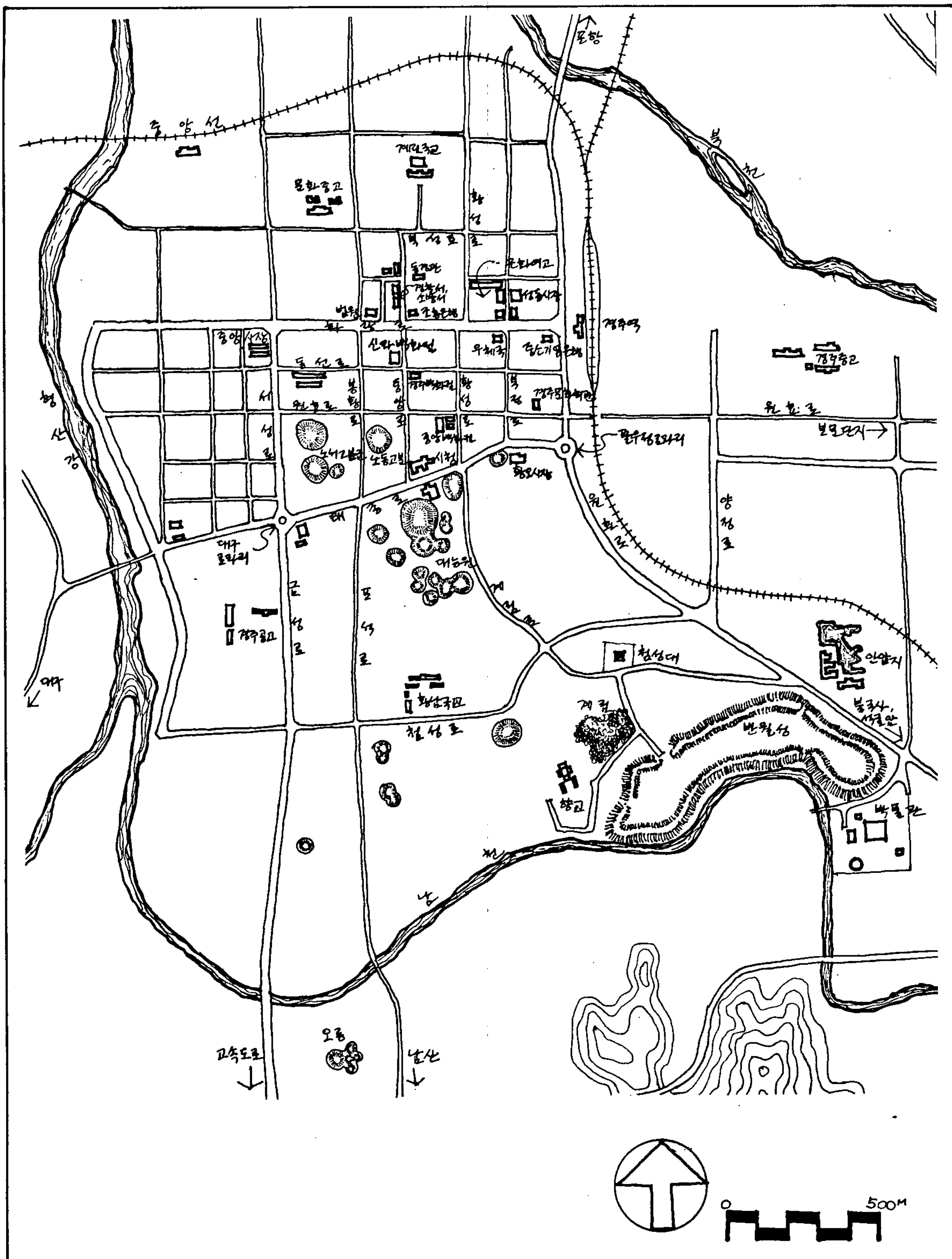

중앙선
계림중고
문화중고
북성로
황성로
문화여고
성동시장
경주역
중앙시장
신라백화점
우체국
경주중고
동선로
원화로
보문단지
시청
양정로
대구 로타리
대능원
경주공고
금성로
포석로
첨성대
안압지
황남국교
첨성로
계림
반월성
향교
박물관
남천
오릉
고속도로
남산
대구
형산강
포항
북천
0
500M

그림2 경주시 전도

가로 도시가 포화상태가 되었고, 또한 도시가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당시 중국 도시의 기본형인 坊里구조를 가진 方形으로 도시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월성 북쪽으로 남북방향으로 朱雀大路가 놓이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 이어지고 네모난 방리들이 북천, 서천, 남천으로 둘러싸인 지역 안에 들어섰다. 이 방리구조를 깬 것은 이미 형성된 남쪽의 월성과 동남족의 고분군이었다. 이러한 도시 형태는 신라의 최성기인 7세기말에 안압지와 임해전, 황룡사에서 그 절정을 맞이 하고, 8세기말 인구는 17만호에 이르고, 1360개의 방리가 있었으며 시내는 기와집으로 뒤덮힌 경관을 이루었다. 이때 경주는 당의 長安, 발해의 上京 龍泉府, 일본의 平城京과 비유되는 동양굴지의 국제도시였다.(김병모, 1984 ; 김원용, 1984 참조)

나. 邑城으로서의 경주

8세기가 지나면서 신라의 국운은 기울기 시작하고 935년에 신라가 망하자 왕도는 대폭 파괴되어 고려시대에는 왕도의 서북쪽 극히 한부분만 남겨 읍성을 쌓고, 東市쪽은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 지역에 경주사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비로소 '경주'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이후 고려 삼경중의 하나인 東京으로 남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인구 5894명, 말기인 19세기엔 73,303명 정도의 평범한 지방도시로서 역할을 하였다. 현재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서북편의 읍성은 1746년 개축한 것인데 총길이 2.3km의 방형으로서 경주시가의 1/4을 차지한다(그림-1 참조). 일제시까지만 해도 읍성 및 관아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관청을 짓는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파괴해 버렸다. 이것이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 경주시의 경관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일제시에 철도가 안압지와 사천왕사지를 통과하는 등 철저한 문화파괴행위가 자행되었고, 1936년 경주역이 신설 이전되면서 도시의 주요 골격은 이 역과 철도를 중심으로 近代景觀으로 변모한다.

다. 觀光都市로서의 경주

경주의 고분을 비롯한 유적의 발굴은 본래 일본인에 의하여 1921년 금관총의 발굴과 함께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해방후 1955년 경주가 시로 승격하면서 서서히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1968년 경주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72년 경주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유적보존 및 정화사업이 시행되면서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한다. 1979년 유네스코가 세계 10대 유적지로서 일본의 동경이나 북한의 평양을 제치고 경주를 선정한 바가 있다. 이후 1983년 다시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모든 관심과 사업은 경주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点으로서의 文化財에 대한 것이었고 경주시가지는 빗겨간 것이었다.

현재의 경주는 역사도시와 관광도시라는 두 얼굴을 가진 도시이다(그림-2). 관광을 위하여 개발을하자니 천년 숨결을 잃어가게 된다(경향, 1983. 7. 13). 경주관광개발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중요 유적에 매달려와서 유적자체의 고풍스런 맛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경주라는 도시 자체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더구나 경주는 이 일대의 중심도시로서 시민의 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적지 단장에 치중하여 도시개발을 소홀히 하여 왔다. 현재 경주는 국제적인 종합관광휴양지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재와 관광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할 과제를 안고 있다(동아, 1992. 4. 8 기타 신문 참조).

라. 요크시와 비교

요크시는 영국의 잉그랜드지방 중부에 있는 유럽에서 제일 매력적이라는 평판을 지닌 역사도시이다(그림-3). 경주보다 110년뒤인 기원후 71년 당시 유럽 일대를 정복한 로마인들에 의하여 新都市(planted town)의 하나로 세워진 것이다. 경주와 마찬가지로 두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이 도시는 2세기경 색손인에 의하여 성벽이 건설되어 성곽도시가 되었고, 9세기경 북부 바이킹의 침입에 의하여 도시형태의 변모를 겪었으며, 1069년 노르만 민족의 정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순탄하게 성장해 왔다. 앞서 세운 성곽과 4개의 성문은 현재 완전히 복원되어 도시경관상 위요(enclosure)요소로 남아 있으며 또한 산책, 휴식 등 레크레이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주는 8세기경에 최성기를 맞고 있지만 요크는 14세기 중세에 최성기를 맞는다. 유럽 대부분의 역사도시들이 그렇듯이 당시 종교도시로서 크게 성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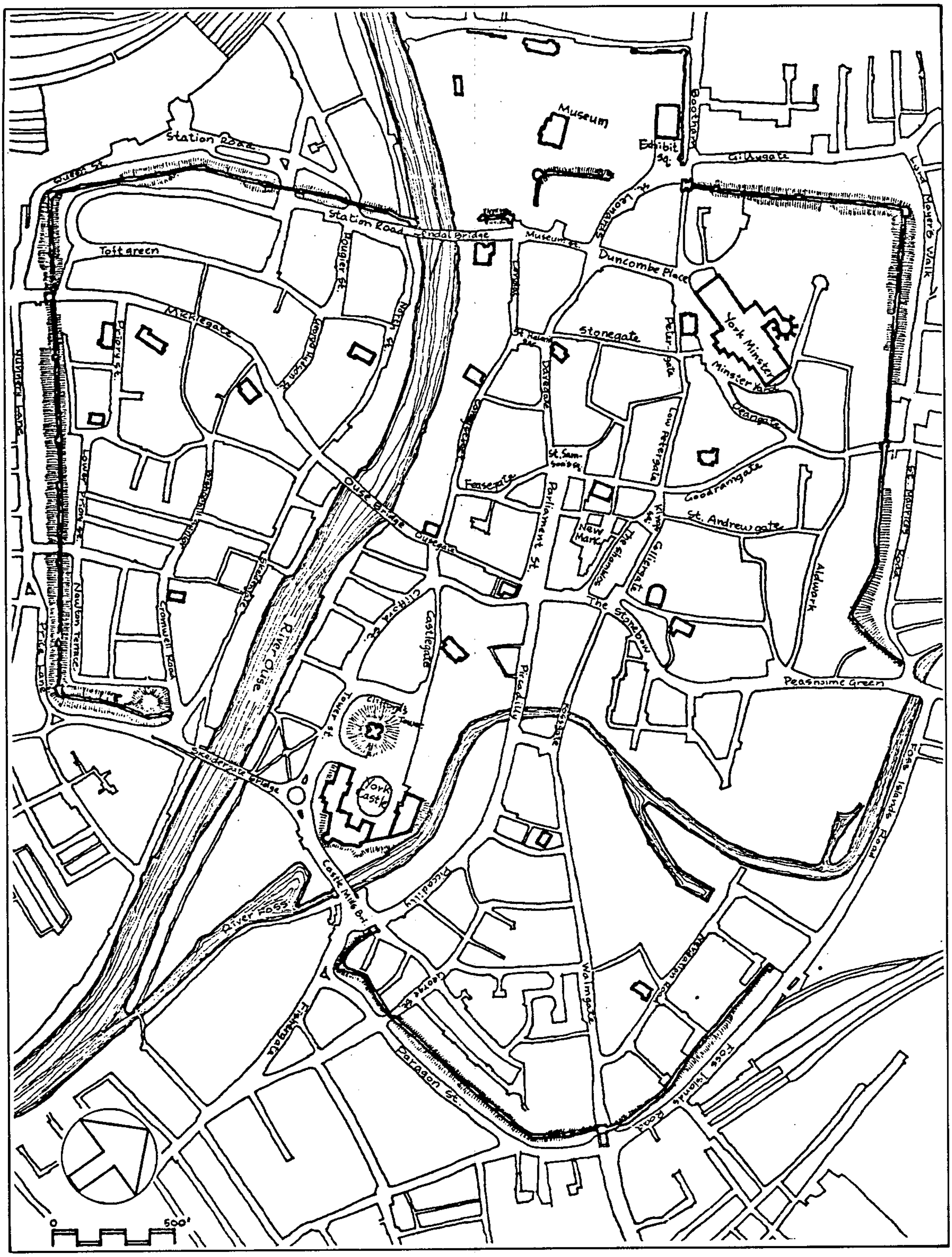

Station Road
Queen St.
Toft green
Micklegate
Station Road
Lendal Bridge
Museum St.
Museum
Exhibit Sq.
Bootham
Gillygate
Lord Mayor's Walk
St. Leonards
Duncombe Place
Stonegate
Petergate
York Minster
Minster Yard
Deangate
Low Petergate
Goodramgate
St. Andrewgate
Aldwork
St. Maurice's Road
Peasholme Green
Foss Islands Road
Parliament St.
New Market
The Shambles
Colliergate
The Stonebow
Piccadilly
Fossgate
Walmgate
Castlegate
Clifford St.
Clifford's Tower
Tower St.
York Castle
Skeldergate Bridge
River Ouse
Ouse Bridge
Ousegate
Feasegate
St. Sampson's Sq.
Davygate
Castle Mills Bri.
River Foss
Fishergate
Paragon St.
Foss Islands Road
Newton Terrace
Cromwell Road
Skeldergate
Rougier St.
North St.
0
500'

그림3 요크시 전도

이후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동안 큰 변화 없이 오늘날에 이른다. 중세이후 요크시는 250여년에 걸쳐 영국 최대의 고딕성당인 요크 민스타를 짓고, 그 전후 50여개의 교구교회를 세웠다. 현재 요크시의 스카이라인은 이들 교회의 뾰족탑들이 지배적으로 장식하고 있다. 도시 인구는 11만명 정도로서 경주 14만명과 유사하고 도시규모는 30km²정도로서 경주시의 도심부 규모와 비슷하다. (필자, 1983 참조)

도시경관이나 가로경관은 대부분의 건물이 해방후에 세워진 경주와는 달라, 로마시대에 계획된 가로패턴을 그대로 간직한채 중세부터 세워진 석조건물이 가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목조건물도 요소요소에 있어 고풍스런 맛을 풍기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하나하나의 유적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들의 集合體로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유적의 보존도 点的인 보존이 아니라 面的인 보존에 치중하고 있다.

Ⅲ. 都市이미지에 대한 說問分析

가. 調査經緯

8개의 자유기술식으로 된 질문과 인지도 그리기로 된 설문을 경주시내 중심가에서 4명의 조사자가 1991. 1. 19 부터 3일간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대구대학 조경과 상급생들로서 조사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응답에 걸린 시간은 피조사자 1인당 평균 30분 정도로서 거리, 상점, 다방 등 여러 곳에서 임의로 표본을 차출하여 총 58매의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이중 8명은 인지도 그리기를 거절하여 인지도는 50매가 수집되었다. 이중 남자가 60% 정도였으며 대부분 20-40세의 청장년층이었고 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이었다(표-1). 응답자가 대부분 주민이었던 것은 관광객은 설문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절하거나 사양했기 때문이다. 요크시의 경우에도 64명을 조사하였지만 관광객은 7인 뿐이어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종의 단답형식으로 된 설문 결과를 물리적 요소, 활동적 요소 그리고 의미적 요소의 3범주로 나누어 그 빈도를 기록했는데 한 사람이 언급한 것은 의미가 적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이 세가지는 어느 특정의 장소의 獨自性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그 장소의 場所性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다.

표-1 대상자의 구성(총 58명) (명)

연령	수	성	수	거주년수	수
20세이하	6	남	37	10년이하	15
20-40세	41	여	21	10-20년	11
40-60세	9			20년이상	25
60세이상	2			방문객 기타	7

나. 知覺, 認知, 價値부여에 관한 구어적 설문 分析 (표-2 참조)

경주시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의 측면을 본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적 요소들을 주로 언급했는데 간혹 이들 요소들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등 간단한 의미를 붙였으며 때로는 사람이 보인다는 반응도 있어, 환경지각은 반드시 물리적 대상만이 아닌 성질이나 의미 그리고 활동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수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고분군이었고 다음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며 시내에 위치하지 않은 불국사나 보문단지를 예외로 한다면 첨성대, 반월성, 안압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낸다. 이 고분군은 경주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1600년간 도시내의 경관요소로서 자리한 것으로 시각적 특성면이나 可視性면에서 경주시의 가장 특징적 요소로 부각된다. 요크시에서는 요크 민스터라는 대성당이 제일 빈도수가 높고 다음 성벽 그리고 도시 전체의 모습 순으로 나타났던 바, 특히 대 성당은 시각적 우세의 면이나 의미면에서 경주의 고분군과 같은 강도를 나타낸다.

인지적 측면을 고려한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세가지 요소들이 모두 나타났다. 물리적 요소로서는 경주의 문화재와 문화적 유적이 으뜸이었고 고분군은 빈도수가 이보다 적어 앞의 지각대상으로서의 순위와 달랐다. 非固定的 요소로서 가족, 친지, 가정 등 응답자와 친밀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깨끗한 도시, 관광도시, 편안함, 조용함 등 도시경관의 의미가 확실한 인지적 요소로 나타났다. 요크시에서는 물리적 요소와 함께 가족 친지 등이 나타난 것은 경주시와 유사했으나 기억의 대상으로서 '상점'이 부각되어 경주와 차이를 보인다. 요크시의 상점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담한 옛 건물들이었고 거기서 특색있는 기념품

표-2 본다, 기억한다, 중요하다에 대한 응답 (명)

	물리적 요소		활동적 요소		의미적 요소	
본다	왕릉, 고분, 대능원	17	사람들, 관광객	2	깨끗한 도시, 도로	6
	문화재, 유적	14			관광도시	4
	불국사	12				
	보문단지	6				
	나무, 잔디, 공원	4				
	첨성대	3				
	반원성	2				
	석굴암	2				
	안압지	2				
기억한다	문화재, 유적	12	가정, 가족, 친지	6	깨끗한 도시, 도로	7
	불국사	11			관광도시	5
	보문단지	7			편안하고 조용함	2
	왕릉, 고분	6				
	박물관	4				
	첨성대	2				
	반월성	2				
	안압지	2				
	나무, 잔디, 공원	2				
중요하다	문화재, 유적	31	집, 가족, 친지	6	옛분위기, 전통	5
	왕릉, 고분	4	사람들, 관광객	3	광광도시	4
	불국사	4			도시정비	3
	나무, 잔디, 공원	4			보존	3

이나 음식, 차 등을 팔고 있어 물건을 사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이들 상점들의 장소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 것이다(그림-6, 7). 반면에 경주시의 상점들은 이러한 매력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주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가치판단에 관련되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어느 특정의 물리적 요소보다는 경주의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활동항목의 요소들이 다소 증가하고 의미 요소들도 증가했는데 그것은 대개 옛 분위기, 전통, 보존, 정비 등 도시 전체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었다. 요크시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는데 다른 것은 '쇼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성당보다 빈도수가 높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상점과 마찬가지로 경주시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 설문을 종합해 보면 고분, 고적, 유적 등 물리적 요소가 경주시의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역활을 하지만 이들은 규모나 기능면보다는 이들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강해서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데 10층이상의 높은 건물이나 경주역, 터미날 등 가시성이 높은 요소들은 그 의미의 취약성으로 도시 이미지 요소로 등장치 못했다. 또한 지각에서인지, 가치부여 쪽으로 갈수록 물리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 활동의 주체로서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의미요소들이 빈번히 나타나 이들 모두가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요크시의 경우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실은 도시 이미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다.

다. 場所選好에 관한 分析(표-3 참조)

볼 만한 곳과 즐길 만한 곳에 대한 설문은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그 장소의 매력도나 혹은 방문하고 싶은 행동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볼 만한 곳은 주로 낮의 관광대상지를 알고자 한 것이며 즐길 만한 곳은 밤의 위락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볼 만한 곳에 대한 선호순위는 불국사, 보문단지, 박물관, 석굴암, 고분(대능원), 남산, 안압지, 반월성

의 순으로서 이 중에서 시내에 위치한 것은 고분과 안압지, 반월성 정도이고 대부분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하나 이들이 선정한 대상이 외곽에 주로 있어 경주시 자체의 매력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요크시가 시내의 가로경관 자체가 관광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사실상 요크시의 가로가 고색창연한 石造建物로 형성되어 있어 경주시가 품위없는 현대식 건물이나 싼 재료로 된 대중적 건물로 도시경관을 이루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 야간에 즐길만한 곳에 대한 응답은 단일장소로서 보문단지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시내의 여러 장소가 산발적으로 나왔다. 보문단지는 의도적으로 조성한 국제관광단지로서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 레크레이션 시설중심으로 되어 있어 역사적 특성이나 토속적 분위기가 없는 '즐김'만을 위한 장소이다. 시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데 술집, 다방, 극장, 호텔, 중앙동네거리, 천마총 옆 등 특정의 장소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국빈관, 기린가라오케, 성건동카페, 궁전나이트, 도투락다방 등 특정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단순히 都心夜景을 들기도 했다.

경주시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응답은 두가지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질이 낮은 건물과 향락 퇴폐업소이다. 그 다음으로 교통문제, 공단 및 공장, 그리고 불량배, 부랑인 등이 열거되었고 상인의 불친절, 쓰레기 문제도 거론되었다. 건물의 저질성에 관한 불만은 부조화, 정비미비, 간판의 난립, 숙박업소의 저급성, 그리고 요사스런 분위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경주시의 도시경관의 질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재료, 구조, 형태, 관리상태, 인접건물과의 상관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된다. 요크시가 바로 시내의 건물들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명성이 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향락 퇴폐업소의 문제는 사회적 풍조에 관련되는 문제이나 이것이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도시경관의 문제가 물리적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자도 주요 구성요소임을 말해준다.

볼만한 곳과 즐길만한 곳에 대한 반응은 그 도시가 삶의 장소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런 면에서 경주시가지는 시각적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삶의 장소로서 그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라. 認知圖의 分析(표-4 : 그림-4, 5 참조)

응답자가 그린 50개의 인지도에 나타난 도로, 건물 등 경관요소를 그 빈도수에 따라 50%이상, 25-50%, 25%이하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도면화하였다. 이미 린치(Lynch,1961)가 분석한대로 5개의 구성요소가 모두 나타났는데 그중 제일 빈번히 나타난 것은 건물과 유적 등 '標的物'과 격자형의 도로가 주축을 이루는 '通路'였다. 상대적으로 '結節点'과 '地區'는 드물게 나타났고 '端'은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아 성벽이나 뚜렷한 경계가 없는 경주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림 5는 조사된 인지도 중 가장 전형적인 것들을 예시한 것인데,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시가지가 주요건물들과 격자형 가로패턴 위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적물로 나타난 것은 빈도로 보아 경주역, 대능원, 시청의 순이고 그 이외에 유적들과 시내의 일반건물이 비슷한 빈도수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어적 설문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시각적 혹은 기능적 이유가 역사적 의미와 같은 비중으로 인식되기 때

표-3 볼만한 곳, 즐길만한 곳,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응답 (명)

볼만한 곳		즐길만한 곳		부정적 요소	
불국사	39	보문단지	25	건물부조화, 저질성	18
보문단지	23	시내(술집, 다방, 극장, 야경 등)	21	향락 퇴폐유흥업소	13
박물관	15	고분군과 잔디밭	5	차량교통	7
석굴암, 왕릉, 고분	15			공장, 공단	5
대릉원	10			쓰레기	3
남산	6			폭력배	3
안압지	5			부랑인	3
반월성	2			상인들의 불친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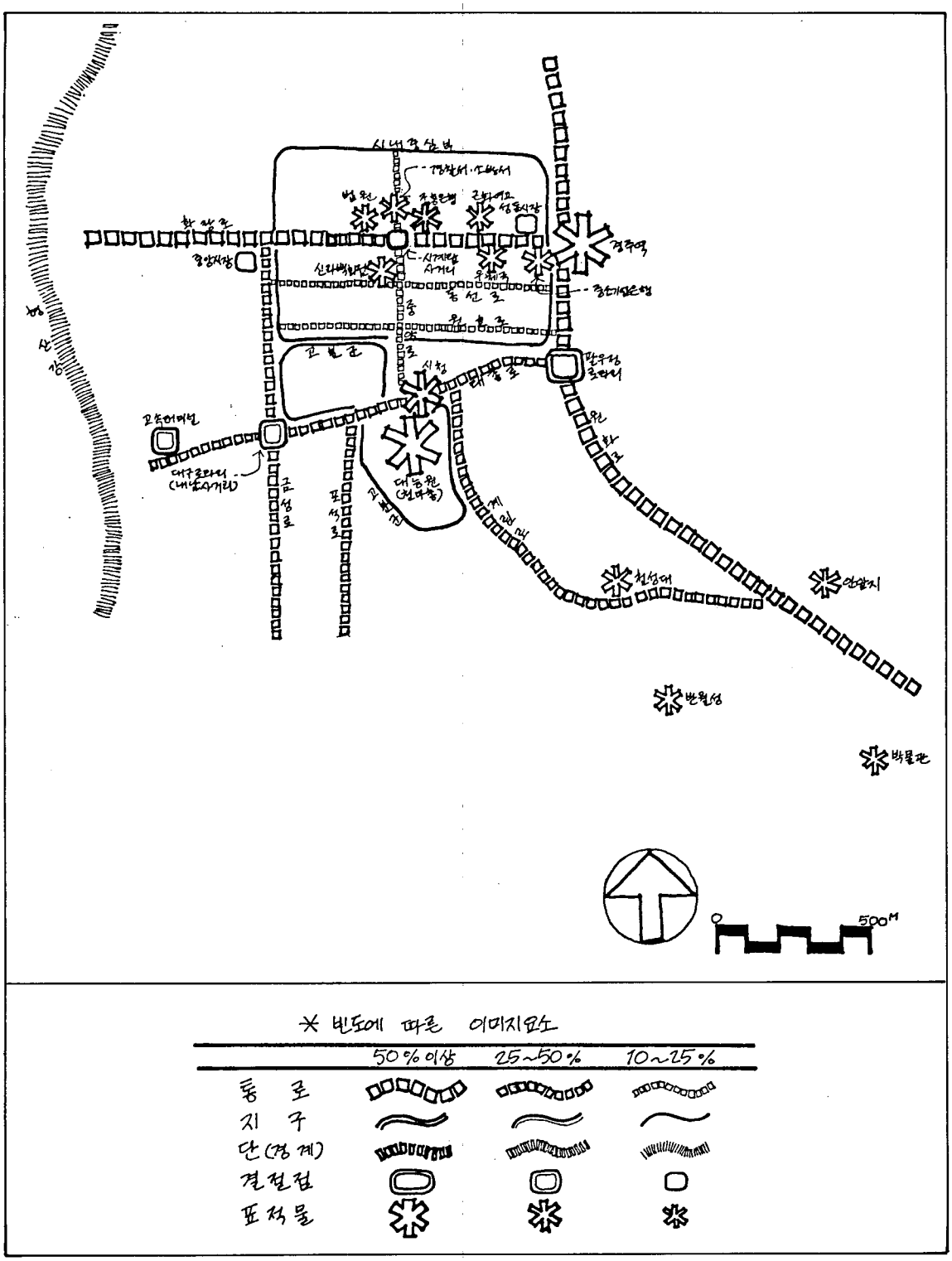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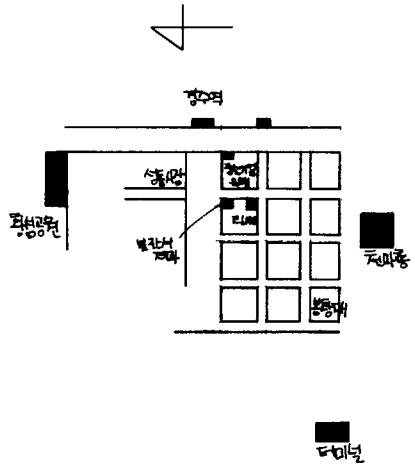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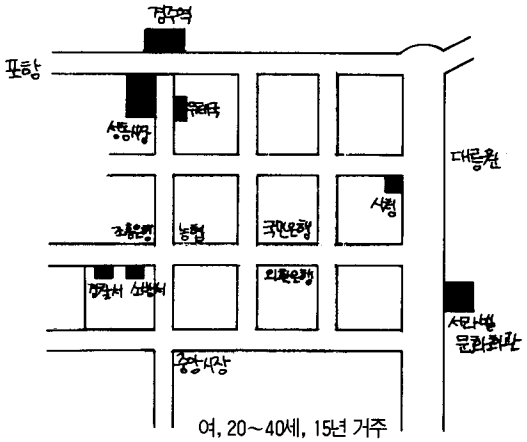
그림4 인지도에 의한 경주시 경관요소

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들 조사된 총50매의 인지도에 나타난 주요 경관요소들을 그 도시 이미지 요소별 출현빈도에 의해 분류 재작성한 것이 그림 4이다. 이 그림중 특히 경주역은 표적물로서 뿐 아니라 결절점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부각되는 요소로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철도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도시 어디에나 공통된 요소라 볼 수 있다. 대능원 등 고분은 역시 여기서도 표적물로 빈번히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노동리, 노서리 고분군들은 지구로서 표현되어 그 역사적 중요성이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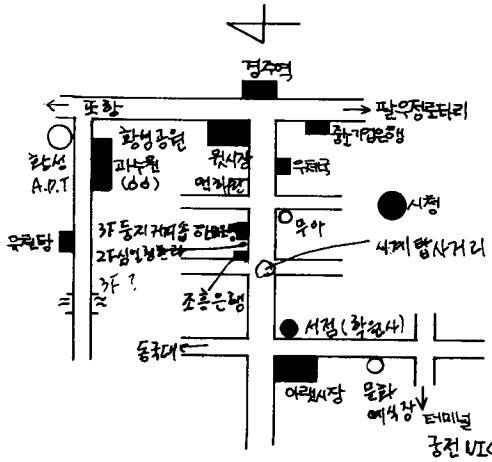
통로로서의 가로들은 여러 가로가 유사한 빈도를 보이면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 초기의 조방제에 의한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명료성(legibility)도 높다. 이것은 또한 지구로서의 식별성도 있어 시내 중심부를 나타내는 한 지역단위가 되며 많은 시내의 표적물들이 여기 모여 있다. 결절점은 겨우 팔우정로타리, 내남사거리와 터미날의 두 장소가 표현되었고 빈도는 적지만 시장이 나타나, 요크시의 시내 여러 광장(market place)들이 빈번히 나타난 것과 좋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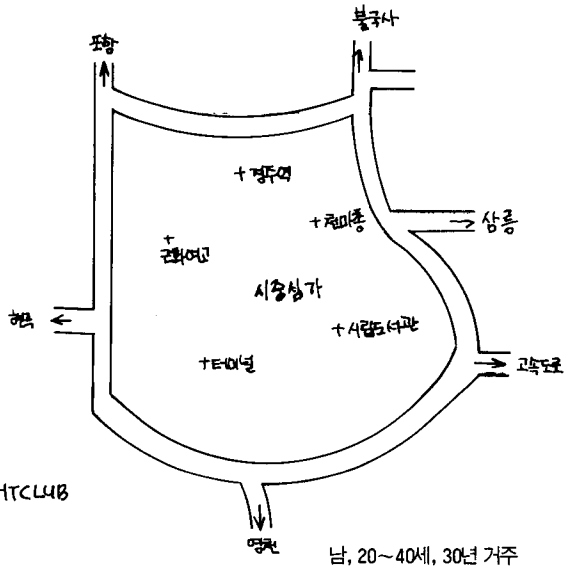
여, 20~40세



여, 20~40세, 15년 거주



여, 20~40세, 3년 거주



남, 20~40세, 30년 거주

그림5 인지도 사례

표-4 인지도에 나타난 경관요소 (총 50매 중 빈도수)

	50%이상 (25회이상)		25-50% (13-25회)		10-25% (5-12회)	
표적물 landmark	경주역	46	시청	21	박물관	11
	대능원	27			우체국	10
					안압지	9
					신라백화점	9
					보문단지	9
					소방서, 경찰서	9
					반월성	8
					첨성대	8
					법원	7
					근화여고	7
					조흥은행	7
					황성공원	7
					중소기업은행	6
통로 path	화랑로	43	태종로	24	중앙로	9
	원화로	39	계림로	20	북정로	8
			금성로	19	원효로	6
			포석로	15	동성로	6
결절점 node	팔우정	32	터미널	17	성동시장	10
			내남사거리 (대구로타리)	13	중앙시장	6
					시계탑사거리	4
단 edge					형산강	4
지구 district					시내중심부	9
					고분군 등	7

가 된다. 물론 경주역이 결절점으로서의 역활도 하지만 이것은 교통광장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어, 서구의 도시에는 광장이 있고 동양의 도시에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이 인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단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주시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주시에 대한 구어적 설문에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 등 외곽의 시설들이 빈번히 언급되면서 인지도내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봐도 이점은 확실하다. 요크시의 경우 강한 성벽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 성안팎의 구분과 도시의 경계가 확실한 것과 비교가 된다.

종합해 볼 때 구어적 설문과 가장 다른 점은 건물과 도로가 빈번히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설문 조사에서는 역사 문화 사회적 의미가 크게 부상된 반면 인지도에서는 도시의 골격과 패턴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더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성요소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요크시에서도 나타나, 이것은 인간의 도시에 대한 환경지각의 특징임과 동시에 도시이미지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마. 別名으로 나타난 이미지의 分析(표-5 참조)

별명은 거의 어느 이름있는 도시마다 갖고 있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축약적으로 대변한다. 그것은 도시의 거주자나 방문자와 도시가 오랫동안 체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문학가나 언론인들이 그 도시의 명성을 높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별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범죄의 도시 시카고'처럼 본의아니게 붙어 다니는 것도 있다.

흔히 알려진 경주의 별명은 '역사도시', '관광도시' 정도이나 설문 응답 결과는 다양하여 10개 정도가 나왔다. 별명을 모르겠다고 한 10명 이외에 48명의 응답자들이 별명을 들었는데 물리적 요소로서 '무덤(고분)의 도시'와 '고적(문화재)도시'가 두드러지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역시 '관광도시' 그리고 의미적 요소

표-5 별명에 관한 응답 (총 58매 중 48명 응답, 1인 응답은 표에서 제외)

물리적 요소		활동적요소		의미적 요소	
무덤(고분의 도시)	7	관광도시	5	서라벌	7
고적(문화재)도시	6			아담한 도시	3
노천(자연)박물관	3			깨끗한 도시	2
고도	3			신라촌	2
				혼의 도시	2

로서는 '서라벌'이라는 옛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 외에 '露天(天然)박물관', '古都', '아담한 도시', '魂의 도시' 등이 열거되어 경주시의 특징과 긍정적 측면을 대변해 주고 있다. 반면에 응답자가 1명 뿐이기는 하지만 '유령의 도시', '소비도시', '껍질 뿐인 도시'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주에 관한 별명들은 바로 이 도시가 지닌 총체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미 알려진대로 관광도시 혹은 고적도시나 서라벌 같은 별명은 예측했던 바이나 무덤의 도시가 부각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설문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과 관련하여 관심을 불러 이르킨다. 결국 별명은 여러 복합된 요소에서 나오지만 그 중에서 경관이나 환경에서 유래되는 것이 많으며 이 점은 필자가 시카고가 가진 63개의 별명을 분석했을 때에도 '호반의 도시', '바람의 도시' 등 경관과 관련된 것들이 두드러졌던 사실(필자, 1988)과도 일치한다. 별명으로 볼 때 '무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관요소로서 경주시의 이미지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Ⅳ. 結 論

지금까지 경주시의 도시경관을 그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살펴보고 시민에 대한 설문 및 인지도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에 관하여 분석고찰하였다. 린치가 종래에 사용했던 인지도 그리기에서는 물리적 요소만이 표현대상이었던 반면에 구어적 설문에서는 물리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적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경주시 도시경관은 이러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리적 도시경관, 그 사회적 특성과 사람들 그리고 도시적 상징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경주는 긴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어 그 역사성과 문화유적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도시로서 시민들의 응답과정에서 특히 시내의 고분들이 물리적 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고분군은 경주시의 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각적 측면,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이용선호도에도 나타났으며 인지도상 표적물이나 지구로서 표현되었고 별명에서도 무덤의 도시로서 명명되어 경주시의 중요한 경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검토된 요크시의 경우 요크 민스터라는 대성당이 우세한 요소로 부각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의미와 함께 역사적 사회문화적 의미가 동시에 고려된 경주 도시경관의 지배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8, 9).

볼만한 곳에 대한 선호는 대부분 경주시내보다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 점적인 유적지를 들었지만 야간에 즐길만한 곳에 대한 선호는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문단지와 함께 경주시내의 각종 활동유발장소를 들어 시내의 역할도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불만스런 요소 역시 경주시 경관의 기본요소인 건물과 가로로 나타나, 요크시의 경우 도시자체의 경관요소가 관광대상이 되고 가로에 늘어선 상점에서의 쇼핑이 주요 관광행위가 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그림 6, 7). 시내에서의 활기찬 도시생활과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비하여 도시시설은 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경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경주시 자체의 경관을 크게 향상시켜 그 장소적 특성을 높히고, '무덤의 도시'로서 대변하는 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영역은 물론 생활의 영역도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일본의 京都에서 文化景, 生活景, 自然景의 세 영역을 함께 고려한 바도 있듯이(村野,1992), 주변의 자연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시내 주요가로의 보행전용공간화(Kim, 1992), 건물의 정비 및 전통감각과 조화되는 현대건물의 창조, 세련되고 정갈한 간판 디자인 등의 물리적 요소의 향상은 물론 경주시 특유의 문화활동 활성화, 고유상품이나 음식 개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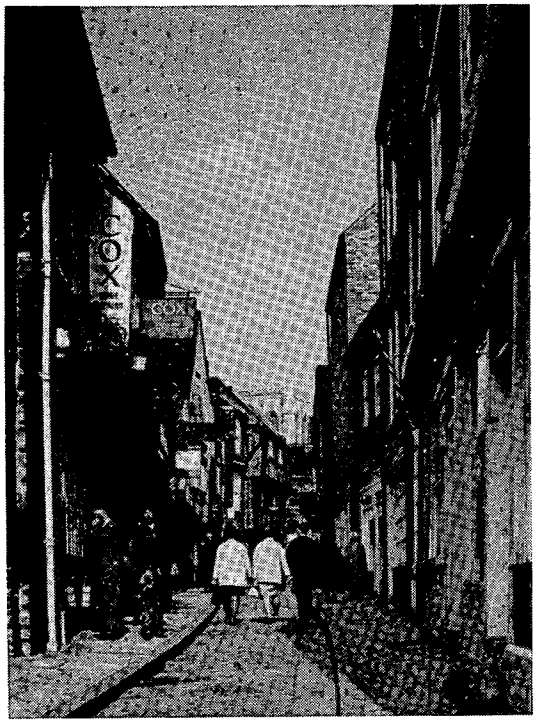


그림6 요크시 경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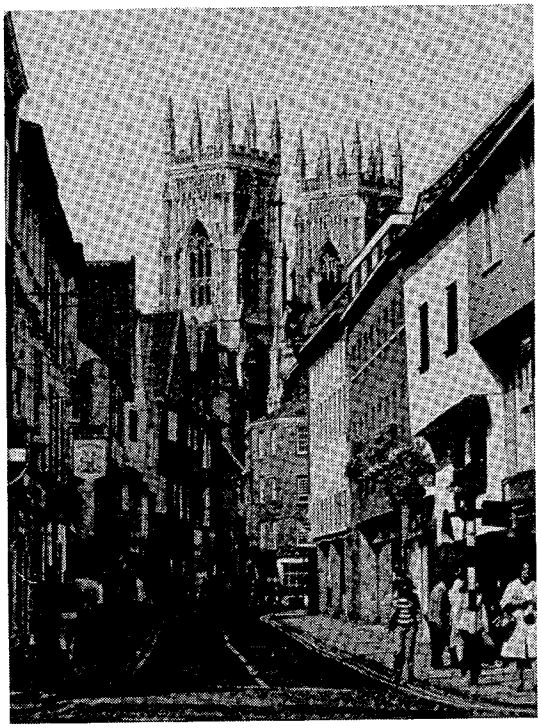


그림7 요크시 경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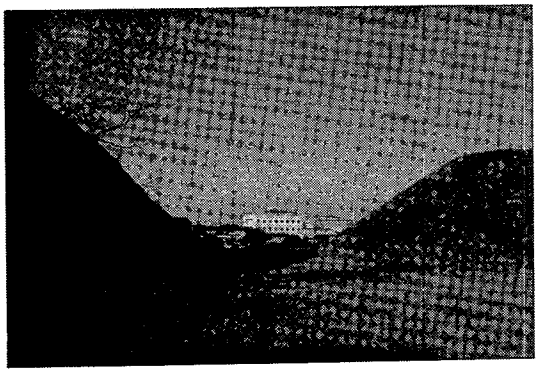


그림8 경주시 경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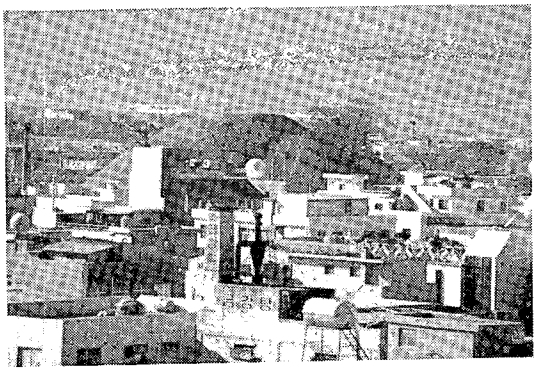


그림9 경주시 경관(2)

인용 및 참고문헌

1. 김병모(1984) "도시계획", 김병모 외, 「역사도시 경주」, 서울, 열화당, 123－141 쪽.
2. 김원용(1984) "고분문화", 김병모 외, 「역사도시 경주」, 서울, 열화당, 256－286 쪽.
3. 이규목(1983) "영국 요크시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조경학회지」 20권 1호, 55－72 쪽.
4. 이규목(1988),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5. 이규목(1988) "인간과 환경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연구", 「건축학회지」 4권 1호, 35－45 쪽.
6.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7. 村野博司(1992) "京의 生活美景" in *Japan Landscape*, No. 23,pp. 30－35.

8. 일간스포츠(1983. 2. 20) 문화가산책 〈경주〉, "천년고도 신라의 숨결 이어 가꾼다"
9. 경향신문(1983. 7. 13) 르포 '83, "천년 숨결 잃어가는 고도 경주"
10. 동아일보(1984. 6. 15) 전국기동취재, "고도 경주, 옛날은 번쩍 오늘은 낙후"
11. 조선일보(1984. 1. 12) "경주 남산 7백만평 곧 사적지정"
12. 중앙일보(1991. 6. 3) 달라지는 내고장, "웅비하는 세계 10대 유적지"
13. 동아일보(1992. 4. 8) 레저, "경주, 휴양지로 거듭난 천년고도"
14. Lynch, K. (1961)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5. Kim, Han-Bai(1992) "Making the Cultural Streets in a Historic Town", 「조경학회지」, 20권 2호, 161－165 쪽.
16. Rozelle, R. & J. Baxter(1972) "Meaning and Value in Conceptualizing the City", in *AIP Journal*, March, 1972, pp. 116－122.